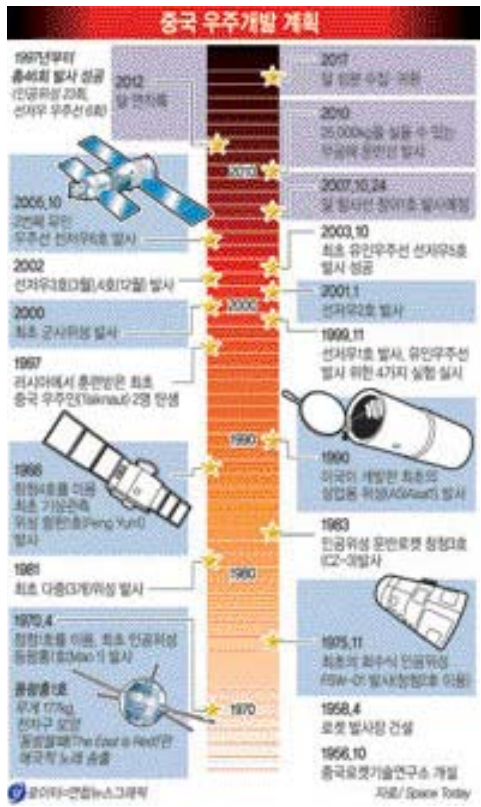


■中 최초 달 탐사위성 창어 1호 발사

달 향한 중국의 '천년 꿈' 무르익다



24일 오후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가 발사되자 중국 전역은 온통 축제분 위기에 휩싸였다. 언론들은 발사 준비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며 달에 가려는 중국인의 천년 꿈을 실현하게 되는 역사적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국영 CCTV는 이날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전 세계에 창어 1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

와상보도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창어 1호가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예정준비를 하고 있다 전설 속에서 베일에 가려졌던 달의 신비로운 모습이 새롭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경신보도 발사센터 통제실에서 관계자들이 긴장감 속에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을 1면 머리기사로 실어 준비 상황을 전했다.

“발사 장면 상상도 못했던 일” 中 전역 달 탐사선으로 떠들썩

며 특집코너를 마련해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진과 그래픽을 곁들여 상세하게 전했다. 새로 선출된 중국 지도부는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창어 1호 발사 특집 기사에서 시간대별 준비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며 그래픽뉴스를 통해 탐사위성을 실어나를 창형(長征) 3호 갑의 도면과 통제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기상 상태 등도 전했다.

베이징의 외자기업에서 근무한다는 35세의 장관은 1장에 800위안(약 10만원)하는 관람권을 손에 들고 “창어1호 발사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감격해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총 여행경비는 1인당 2천위안 가량으로 중국 주민으로서 큰 돈이지만 평생의 기념이어서 아깝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시창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 관광업계는 넘쳐나는 관광객, 보도진, 과학자들로 즐거운 비명이고 호텔등 숙박업소와 항공기표 예약은 이미 완료됐다.

“한반도 평화주체는 南·北·美·中”

美 국무차관 “6자회담, 영구적 안보체제 전환 고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로 보고 있다고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 오찬 연설에서 장차 체결될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에 대해 “분명히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4개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핵 6자회담을 영구적인 지역 안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소개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다자안보체제가 어떤 형태로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가지 아이디어는 6자회담 특히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을 영구적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시작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 안전가 평화적인 해법에 이르게 되면 아시아 안보에 관한 광범위한 다자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적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면서 미국은 “서두르되 신중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고 북한 체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 않은 채 단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격언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러닝 스프링스의 시크릿 드라이브와 엔시나 웨이의 교차로 부근에서 한 소방관이 화재에 휩싸인 주택에 물을 뿌린 뒤 소방차로 돌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불타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6명 사망...한인 피해도 증가

강풍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고 주택과 상가 등 1천500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말리부 지역을 시작으로 발생한 산불은 23일 LA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로 확산되는 등 북쪽의 샌타바버라부터 남쪽의 멕시코 접경 지역까지 태평양 연안 7개 카운티내 20여곳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 불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긴급 대피했던 이재민 가운데 4명이 호흡 곤란 등을 일으켜 사망하고 샌타클라리타 지역 화재 현장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고 주택과 상가, 별장 등 1천500채 이상이 전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천300채 가량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만 34만6천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져 1만명 가량이 켈립스타디움에 피신해

있는 등 7개 카운티 지역에서 모두 80만명 가량이 산불을 피해 집을 나와 대피소나 호텔, 친척집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지금까지 한인들의 피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샌디에이고 지역의 교회와 주택 등 수십 채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민들은 주로 교회 등으로 피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워싱턴시 '바지소송 판사' 책임용 거부 결정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천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해 미 워싱턴시가 책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

영생 얻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달의 여신'

■탐사위성 이름 '창어'는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인들도 창어의 전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지상관제탑 지휘부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직전 우주인들에게 창어나 토끼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라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달의 여신 창어는 '달나라로 간 창어의 전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달나라로 간 창어의 전설은 중국 민간에서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은 창어를 중국의 비운의 여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69년 우주왕복선 아폴로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 1호'는 앞으로 1년간 달 궤도를 순회하며 달 표면의 영상 등을 지구로 전송하고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창어 1호는 달의 여신 창어와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세이징=연합뉴스

中-印-日 달 정복 경쟁 본격화

■ 日 지난 9월 '가쿠야' 성공
■ 印 내년 '찬드라얀' 발사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 인도 등 3대 강국이 달 정복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중국은 24일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어(嫦娥) 1호'를 발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3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를 발사하고 10년 후인 2017년 우주왕복선을 파견한다는

아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도 중국보다 40일 빠른 지난 9월14일 가고시마현 다케가시마우주센터에서 첫 달 탐사위성인 '가쿠야'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가쿠야는 12월부터 달 표면의 원소와 광물의 종류, 분포 상황 등을 관측해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이에 뒤질새라 인도도 내년 4월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호를 쏘아올리기로 하는 등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찬드라얀 1호는 달 상공 100km 궤도에서 2년간 비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명이 1년 길다. /연합뉴스

“美, 韓·日 등 11개국 ‘글로벌 호크’ 공동구매·운용안 발족”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은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들이 글로벌 호크를 공동구매,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는 23일 미 공

군내 4월 하와이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11개 국가를 초청, 아·태지역 공중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방안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제프리 레밍턴 준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무인정찰시스템 관련 회의에서 내년 4월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등 11개국 대표들을 한 자리에 불러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구매와 운영을 위한 아·태지역 컨소시엄에 대해 논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잡지는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글로벌호크 이착륙 기지를 제공하고 대신 정보를 연계 줌으로써 컨소시엄은 더 많은 국가들에 글로벌호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특별한 기쁨과 사랑과 희생을 고집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마술을 통해서 어떤도 못하는 것을 무엇이 할수있을, 상상력을 깨닫기 할수있을 등...
 뛰어난 실력으로 만들어 낼수있는 것은 물론 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온갖의 놀라움과 기쁨을 주는 마술이 있으며,
 볼수록 흥미로운 마술의 본질은 모든 사랑을 위해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무한정도의 사랑입니다.

수료 / 질서 / 상수

- 마술사, 조, 변신술,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 마술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무엇을 : 어떤 어떤이 마술 고상 목적

가슴을 차분하게 하는 등...
 ...
 ...

순천 교육장소 **매직&매직 아카데미** **문의 : (062)434-7857**

12월 15일 사망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놓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 가 뜬다!

자격기본법 제5733조에 의해 시행된 협회출신자격
 자격취득과 중 위임비영지 추천 완료! 학생·주부·직장인들 환영!!

자격취득과 중 위임비영지 추천 완료!

...
 ...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
 ...
 ...

문의 : (062)434-7857